료고쿠　～에도의 역사를 계승한 거리～

↑에도시대(1603-1867)의 JR 료고쿠역 주변 지도

↑현재 JR 료고쿠역 주변 지도(2017)

※▲는 같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료고쿠 다리　　▲：에코인(절)

▲：료고쿠 국기관　　▲：에도 도쿄 박물관

파란 부분은 스미다 강 입니다。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에도시대부터 형태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고지도안에서、노란색 부분은 부케야시키(무사 저택)가 늘어선 구역、회색 부분은 상인들이 살았던 상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료고쿠의 어디가 매력적인가？

150 년 전 까지、일본인은 기모노를 입고 낮은 목조집에서 사는 등、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한 에도시대의 역사를 계승하는 곳이 바로 료고쿠입니다。여기에는

・역 주변에 에도와 관련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스카이트리와 도쿄역이 가까워서 현재 도쿄의 진화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와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특히、서로 관련된 4 개의 장소를 지도 위에▲로 표시했습니다。

▲에코인(절)

1657 년의 화재로、10 만 명 이상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같은 년도에 건설된 사원입니다。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키시(스모 선수)가 시합으로 승부하는 스모 경기는、여기의 절 수선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료고쿠 국기관 (▲)

▲료고쿠 다리

1661 년에 완성된 다리입니다。1657 년의 대 화재때 다리가 없어서、많은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되었습니다。고지도를 보면 다리 양쪽이 굉장히 넓은 광장처럼 보이는데、이것은 다리 양쪽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많은 포장마차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북적였다고 합니다。이 모습은 에도 도쿄 박물관 (▲) 에서、모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미다강 불꽃놀이

현재 여름 도쿄의 명물이 된 스미다 강의 불꽃놀이는、료고쿠 다리 부근이 발상지입니다。

↑료고쿠 다리를 그린 우키요에

18 세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1897 년의 불꽃놀이의 폭죽으로 료고쿠 다리의 난간이 무너져 내려 다시 건설 했을땐、다리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결국 광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JR 료고쿠역까지 가는 법

하네다 공항에서：전철로 약 50 분

도쿄역 에서：전철로 약 15 분